

‘강원에코홈페어’

오늘부터 나흘간

올해 6회째... 춘천 호반체육관

강원에코홈페어 2015-주택·건설·건축박람회회가 25일 개막한다. 강원에코홈페어는 도내 유일, 최고의 주택·건설·건축 분야 박람회로 2010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관련기사 8면

이번 박람회는 25일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나흘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다.

올해는 강원도와 춘천시를 비롯한 18개 시·군이 모두 박람회에 참여하며 일반 기업 총 40여개 업체에서도 전시부스를 마련, 모두 78개 부스를 선보인다. 전시품목은 개인 가정의 가구나 조명, 실내 인테리어 소품을 비롯해 건물 및 주택 디자인,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친환경 제품 등이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2면에 계속

강원에코홈페어 오늘 개막 - 1면에서 계속

강원에코홈페어 2015-주택·건설·건축박람회 사무국은 전시회 기간 도내·외 건설업체 CEO를 비롯해 건축사, 토목설계사, 도·시·군 및 공공기관 관계자, 건설·건축 관련 학과 대학생, 주민 등 연인원 1만5,000명 이상이 전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박람회 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강원에코홈페어 기간 동안 업체간 교류는 물론 판매·계약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판로개척 및 시장 진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내년 당초예산 8.2% 증액 편성

7,424억 민생·올림픽 중점

[강릉]강릉시는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올해보다 8.2% 증액한 7,424억원으로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회계별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가 8.7% 증가한 6,50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917억원으로 올해 대비 4.7% 증가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방향은 서민생활 분야와 동계올림픽 준비에 중점을 뒀다.

특히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를 20~30% 절감했으며 민간단체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동결했다.

또 앞으로 경상경비 예산을 5~10% 절감해 50억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체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사업은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240억원),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152억원), 강릉-원주 복선전철 도심 구간 사업(100억원), 도시계획도로 23개 노선(87억원), 순포개호습지 복원사업(37억원), 연곡해변 관광지 개발(24억원), 올해(2017)의 관광도시 조성(24억원), 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53억원), 주문진 등대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14억원) 등이다.

정익기기자

평창동계올림픽 주도로 영동고속도로 IC 명칭 변경

장평IC → 평창IC 횡계IC → 대관령IC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시 올림픽 주도로가 될 영동고속도로 장평IC와 횡계IC가 각각 평창IC와 대관령IC로 명칭이 변경된다. 평창군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올림픽 주도로가 될 영동고속도로의 장평IC를 평창IC로, 횡계IC를 대관령IC로 각각 인지도가 높은 명칭으로 변경한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마을단위 명칭의 IC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 중인 평창의 도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없고,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명칭 변경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번 명칭 변경에 따른 시설물 준비는 평창군과 한국도로공사가 업무협약을 통해 실시하게 되며, 예산 부담은 평창군이, 사업 추진은 한국도로공사가 각각 맡게 될 예정이다.

기존 장평IC와 횡계IC로 표시된 틀게이트 지명표지를 비롯해 고속도로 도로표지판 등 시설물이 정비될 예정이다. 각 IC마다 3억원씩 모두 6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당초 평창군은 명칭 변경을 추진하며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장평IC를 평창(장평)IC로 이중 병기할 것을 추진했지만 한국도로공사 자체 지침상 이중 병기가 불가능해 평창IC 단일 명칭으로 변경기로 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라 세계인이 평창을 주목하고, 내·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급증하는 만큼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 인지도 높은 명칭변경이 필요했다”며 “동계올림픽을 통한 30년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창=김영석기자 kim711125@

홍천군 예산 4,373억 편성

[홍천]홍천군은 4,373억원 규모의 2016년도 당초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군은 내년도 예산 규모를 국내외 경제의 성장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에도 전년 대비 6.7%인 275억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장기영기자 kyjang3276@kwnews.co.kr

친환경 주택·건설·건축 제품 한자리에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리는 '강원에코홈페어 2015-주택·건설·건축박람회'에 관련 업체와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강원건설단체연합회와 강원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도와 춘천시 등 18개 시·군이 후원한다.

지역 주택·건설·건축 관련 모든 제품이 한자리에 전시되는 만큼 업체와 소비자, 업체와 지자체 간 연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또 일반 주민들의 경우 홈 인테리어 기자재 및 가구와 실내 인테리어, 전원주택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 내 집을 꾸미는 데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택 관련 종합전시회=강원에코홈페어 2015는 도내 최고의 주택

오늘 본보·도건설단체연합회 주최 행사 개막 18개 시·군 참가 '내 집 꾸림' 유용 정보 가득... 내일 '건설발전 심포지엄'도 열려

관련 종합전시회로 열린다.

또 도내에서 유일한 주택·건설·건축박람회로 녹색성장의 중심, 강원도의 녹색건설 및 건축자재 소개의 장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맞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주택환경을 조성하고 도내 주택·건설업계에서 생산하는 주택 소품 및 인테리어에 대한 정보 제공도 이뤄진다.

전시회에 부스를 마련한 기업과 대상 품목도 다양하다.

출품 대상 품목은 △건축자재(바닥재·내장재·지붕재·외장재·구조재·도장재·방수·단열재·방음) △가구 및 인테리어(인테리어가구·생활가구·사무용 가구·전통가구·DIY가구·사

물함·가구하드웨어·벽난로·침장류·블라인드·스크린·인테리어 소품) △전원주택 및 주택정보 분야(목조주택·스틸하우스·펜스·모델하우스·실외 리모델링) △생활가전 및 디지털 홈 분야(가전·도어록·홈큐리티·홈네트워크시스템) △조경 및 공공시설 분야(실내 조경·잔디·펜스·정자·놀이시설·수목보호대·옹벽) △욕실 및 주방 분야(위생도기·욕조·샤워기·샤워부스·욕실가구·스토브·사우나부스·시스템부엌가구) 등 수십여 가지에 이른다.

■강원도·18개 시·군 참여=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강원도와 춘천시 등 18개 시·군이 모두 홍보부스를 마련해 강원도에코홈페어 2015에 대한 지자

체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자치단체의 관광, 농특산물 등을 전시할 수 있는 홍보관은 효과가 크고 각 지자체의 주력사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막식 다음 날인 26일 오후 2시에는 도내 주력산업인 건설업의 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강원건설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이 춘천베어스관광호텔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강원에코홈페어는 지난해 관람객이 연인원 1만명에 육박하면서 5년 연속 성공적으로 개최, 지역 주택·건설·건축업계 홍보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내년도 관련 업계의 모든 제품을 한곳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서 관련 업체와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위문기자 faw4939@kwnews.co.kr

/ 참가기업 소개 /

녹지 조성·수질 개선 콘크리트 블록 생산



세진콘크리트공업(주)

세진콘크리트공업(주)(대표:이수권·사진)은 1988년 원주에서 창업했다.

이후 1998년 KS표준 인증을 시작으로 2005년 ISO 인증, '2007년 아노비즈, 2009년 벤처기업에 선정되는 등 다수의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도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제품으로는 보강토옹벽블록, 보차도용 인트로킹 블록, 식생호안블록, 투수인트로킹 블록, 인조화강 경계블록, 콘크리트경계블록 등이다.

보차도용 인트로킹 블록은 조립해 보도, 차도, 광장 주차장 등에 사용하는 블록이다.

식생호안블록은 토사 침식 방지와 녹지 조성 및 토양 개량, 수질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 자연 경관과 어울리게 꾸밀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유무선 융합 자동제어 기술력·품질 인정받아



(주)선우콘트롤

춘천 (주)선우콘트롤(대표:유효숙·사진)은 유무선 융합 기술을 이용한 자동제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을 받아 기

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2014년에는 황성에 공장을 신축, 자동제어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친환경냉매를 이용한 지열히트펌프의 개발과 국산화에 지속적인 투자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SWG-30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도 받았다.

이 업체는 별도의 통신선이 필요 없이 내장된 건전지를 이용해 주변의 환경정보를 감지하고 이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무선 센서, 무선 센서가 전송하는 정보를 수신하는 무선수신기, 무선수신기가 수신한 정보를 중앙 관제센터로 전송하는 중계기를 포함하는 무선센싱모듈을 구축했다.

'라돈' 빼고 기능 더한 경량 보드 개발·제조



리프로-엔

원주의 리프로-엔(대표:오성훈·사진)은 지금까지 축적해 온 전문적인 기술들을 모두 결집해 새로운 환경적 공법과 제품들을

개발·제조·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회사의 제품인 'SUPER 520 보드'는 라돈과 같은 성분이 없고 가공·절단 등의 시공성 등 성능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경량 CRC보드로 합판, 석고보드, 마그네슘, CRC보드 등을 모두 대체할 수 있어 눈길을 끈다.

'아크릴방수시트'는 EVA 시트에 아크릴레이트를 함침시켜 물의 침투를 방지하는 자가치유 기능이 있는 방수시트다.

대구도시철도공사에서 개발, 지하철공사에 시공된 순수 국내기술제품으로 세계적으로 방수성능이 월등하고 시공이 아주 쉽다.



최기섭 홍천세무서장과 홍천군세정협의회회원인 오인철 도일반건설협회장 등은 24일 불우이웃에 연탄 1800장을 배달했다.

홍천세무서, 연탄 배달로 나눔 실천

지역내 6가구에 1800장 전달

홍천세무서가 24일 저소득층 이웃을 찾아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연탄 배달 행사를 펼쳤다.

홍천세무서(서장 최기섭)는 이날 오전 홍천세무서 사랑나눔 봉사회원과 홍천군세정협의회원들과 함께 홍천군 남면의 한 불

우가정을 방문, 성금으로 구입한 연탄 1800장을 6가구에 300장씩 배달했다.

최기섭 서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나눔 세정을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홍천세무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천/유주현 joohyun@kado.net

박용환 회장, 아너소사이어티 가입

박용환(42·사진) 더파크 종합건설회장이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이름을 올린다.



입은 도내 29번째, 원주지역의 경우 6번째다. 박 회장은 회원 가입으로 5년간 1억원을 기부하게 된다. 박 회장은 "돈을 쫓기보다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원주/정성원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5일 원주시청 투자상담실에서 박 회장의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의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가

동해시 3470억 규모

일반회계 2715억

특별회계 635억

내년도 동해시 당초 예산이 올해 3074억원보다 12.8% 증액된 3470억원으로 편성돼 동해시의회에 제출됐다.

내년도 동해시 예산 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7.1% 증액된 2715억원,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47.3% 늘어난 635억원, 기금 회계는 9.77% 증액된 120억원으로 짜여졌다.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의 32%인 88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

지하고 있으며 이어 문화·체육·관광·환경 분야 263억원,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 243억원, 경제분야 252억원 순이다.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추암~증산간 도로개설 등 도로환경 개선 사업에 89억원, 망상오토캠핑장 시설개선과 추암 관광지 개발 사업에 66억원, 재해 위험지와 급경사지 정비 사업 등에 52억원, 필드하키장 조성 과 실내훈련장 조성 사업에 20억원, 수산물 위판장 건립 사업 등에 27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11억원 이 각각 세워졌다.

동해/조병수 choobs@kado.net

강릉시 7424억 편성

올해보다 8.2% 증액
시장 업무비용 절감

강릉시가 내년(2016년) 당초예산안을 7424억원으로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8.2%가 증액된 규모다.

일반회계가 8.7% 증가한 6507억원, 특별회계가 4.7% 증액된 917억원이다.

시는 서민생활안정과 2018년 동계올림픽 준비에 중점을 두는 한편 올림픽 준비로 인한 시민 삶의 질 저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장과 부시장 업무추진비를 20~30% 절감하고 민간단체의 보조사업도

전년 대비 동결했다.

또 경상경비 예산을 5~10% 절감, 약 50억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체 투자사업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주요 투자사업은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240억원), 올림픽아트센터 건립(152억원), 원주~강릉 복선전철 강릉도심구간 사업(100억원), 연곡해변 관광지 개발(24억원), 순포개호 습지 복원(39억원) 등이다.

또 학교교육경비지원에 62억원, 학교친환경급식지원에 53억원 등이 편성됐다.

강릉/최동열 dychoi@kado.net